

“세계지질공원 인증, 광주 발전 토대 될것”

허민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장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광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허민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장(전남대 부총장·대한지질학회 회장·사진)은 2년 2개월간 발로 뛰며 유네스코 인증을 진두지휘했다. 세계 각국의 17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등재에 성공한 배경을 연구 실적, 시민단체 활동, 전남부서를 구성해 적극 지원한 광주시 등을 꼽았다. 유장현 광주시장이 실사단에 직접 무등산권의 가치를 설명한 열정도 한몫했다. 허 단장은 이번 등재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브랜드화, 지오투레일 등 세계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등산권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했다.

▲무등산을 어렵잖이 무등산을 광주의 명산으로 인식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작업을 시작하면서 깊이 있게 알게 됐다. 주상절리대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다. 연구용역은 17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진행했다. 홍콩, 영국 등 세계지질공원을 투어하며 연구논문을 내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밑작업을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8권의 책자로 구성된 신청서에는 무등산권의 학술적 가치를 연구한 논문들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관리운영계획, 지역민 서명 등이 포함됐다.

심사는 지난해 9월 1차를 거쳐 11월 2차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후보지로는 무등산권을 비롯해 총 17곳이 올랐는데, 지난 4월12일 개최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4곳이 탈락된 13곳이 확정됐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무등산권에 대한 실사위원들의 평가는 어땠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연구·경제활성화 계획 인정

무등산권 3대 세계화사업 추진

5·18 등 문화유산 알리는 계기

화 계획 등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가 학술적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인증에만 신경을 썼다. 무등산의 경우 연구를 통해 대표 명물인 주상절리대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지질구조라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주상절리대 암석은 ‘무등산 응회암’으로 명명해 국제적 공인까지 받은 상태다. 공룡이 등장하는 영화를 제작하면 반드시 인용될 정도로 세계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화산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역시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례다.

무등산보호단체, 무등산공유화재단 등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의 역할도 컸다. 무등산보호단체는 25년에 걸쳐 활동을 펼쳐왔으며, 언론사도 무등산 보호캠페인을 20여년 이상 실시했다. 민간단체가 하나의 이슈로 장기간 활동한 것은 이례적으로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실사에서 무등산권

은 최종 선정된 13곳 중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이 현실화되기까지 숨은 노력이 있었다면 소개해 달라.

▲가장 큰 조력자는 역시 광주시다. 무등산권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구상부터 현실화까지 2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사가 어려운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한 발자국씩 내딛었으며, 인증을 위해 푸른도시사업소에 전문가를 투입, 전문팀을 꾸리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유장현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증까지 성큼성큼 다가설 수 있었다. 윤 시장은 시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실사단이 광주를 찾을 때마다 직접 만나 무등산권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했다. 당시 윤 시장의 태도에 감동한 실사위원 일부는 아직도 윤 시장의 안부를 물을 정도다.

학계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컸다.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선 이들이 많았고, 전남대 지질공학과와 자원공학과 교수들은 개인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참여해줬다.

=인증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그 자체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세계 명소가 되기 때문이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찾는 이들을 통해 양림동 근대문화역사마을, 5·18 등 광주의 문화유산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효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무등산권에 포함된 담양, 화순 등은 아직 관련 학술연구가 미흡하다. 이러한 학술연구를 포함해 무등산권 세계화사업을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가 학술연구라면 두 번째는 워크숍 개최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유네스코 견인 및 교육이다. 세 번째로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로 세계지질공원 성공 모델과 네트워크를 구축, 시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공직자의 역할’ 내일 강연·토크쇼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광주지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로드쇼가 열린다.

광주시는 17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이라는 주제로 교육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로드쇼는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로

봇·사물인터넷 등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과 전문가들의 강연과 정중이 참여한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연에는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송봉섭 아주대 교수,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 최형욱 매직에코 대표, 유영만 한양대 교수, 엄운설 로봇디자이너가 참여하며,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서현진 아나운서 등이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 주제는 ▲AI작곡 : 창의지능을 향하여 ▲도시의 미래-자율주행자동차 ▲로봇기술과 미래 ▲

연결이 만드는 변화와 미래 ▲공부는 망치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인간-로봇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소셜 로봇 등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초등·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아카데미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지난 3월부터는 일반 청년·대학생에게 인공지능 등 GIST 학위과정 8개 강좌를 개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운영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추진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자살 예방 워크숍’ 개최...대책 논의

광주시는 17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정중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청, 보건소,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대학병원, 주민자치센터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살예방 국가

정책방향과 선진국의 자살률 감소 사례, 광주시 자살예방관리사업 종합대책 및 자살예방체계 구축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국내외 정보를 공유했으며, 광주시 자살현황을 토대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지난 2012년 25.4명에 달했으나 2015년 21.4명으로 감소해 4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성과를 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IT 주민 돌봄서비스...북구, 지자체 첫 총리상

광주시 북구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18 정보통신 분야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의 체험·활용을 통한 주민 대응역량 강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치매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민 공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보통신 보안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정보

통신공사 사용자 검사 업무 처리기한 단축 등 정보통신 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산업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근로자들의 통신비를 절감했다.

그밖에 지능형 CCTV 설치,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차세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4월22일은 ‘지구의 날’

지구시민운동연합 행사 성료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가 ‘행복한 마을, 행복한 지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해 ▲운천저수지 정화활동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지구의 날 홍보 EM흙공 만들기 ▲EM 친환경 비누 만들기 ▲지구시민운동연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송민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 대표는 “지구와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우리는 ‘지구’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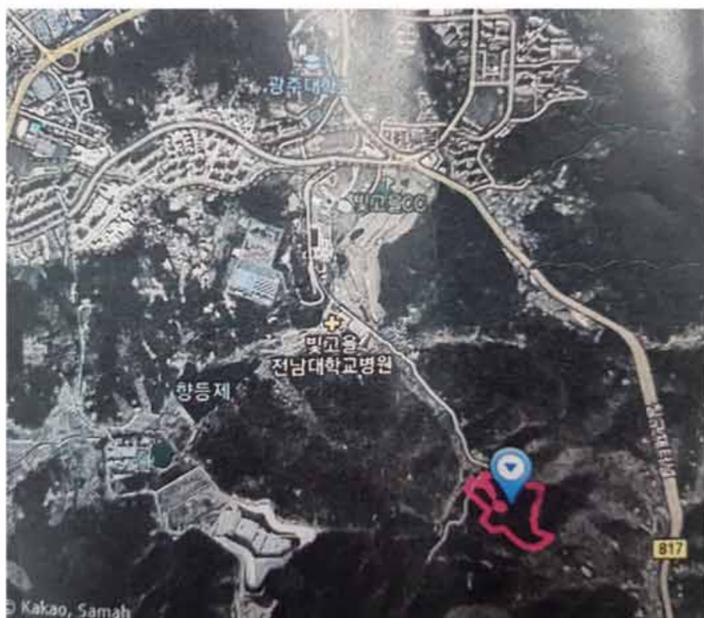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시민 가드너 양성 교육

5월1일까지 25명 모집

광주시는 2018년 ‘시민 가드너’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5월 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가드너 양성 교육 참가자 25명을 모집한다.

‘시민 가드너’는 광주지역 공원이나 녹지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생활 주변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은 이론·실습과정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강사가 정원 이론교육과 정원 디자인·시공 등 기초과정 등 총 60시간 교육한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고문과 블로그(blog.naver.com/gardenfiesta)를 참고하고, 전남대 조경설계연구소(062-530-0319)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별도다.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만원~~ - 급매 5만원 (일시불 원불조건)
- 문의. 010-6838-1230